

『월드뷰』가 만난 이달의 인물

# 기독교인 아랍 전문가 공요셉 박사를 만나다

이달의 표지 인물로 공 요셉 교수님(전 요르단 대학교 교수)을 소개합니다. 그는 아랍 연맹의 '교육문화과학의 아랍기구'(Arab Organization for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가 우리나라 교육부를 통해 선발한 장학생으로 카르툼 국제아랍어 교육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아랍어 교육'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수단의 움두르만 대학교에서 꾸란의 음성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 후 부산외대와 한국외대에서 9년간 아랍어와 중동 사 등을 강의했습니다. 한국학 중앙 연구원에서 요르단대학교로 파견되어 2002년부터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며 한국어 교양과정을 한국어 전공으로 승격시키고, 아르묵 대학교에 한국어 교양 과정 등을 설치하는데 이바지하여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중동국가들을 순회하면서 중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 요셉 교수님은 기독교인의 아랍어와 무슬림의 아랍어 간의 차이를 연구하며, 아랍 신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호에 이슬람을 다루면서 공요셉 박사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현재 공요셉 교수는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소 윤정(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교수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편집자).

**인터뷰** 소윤정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한세대학교 신학과 졸업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에서 AIGS M. Div . (영어과정)를 마치고 선교학 전공으로 Th.M(2003년)과 Ph.D.(2008년) 학위를 받았다. 서울기독교대학교 선교학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2005년부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한세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와 백석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강의한바 있으며,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선교대학원 아랍선교학을 전담하면서 아랍문화연구원을 맡아 사역하고 있다.

소 윤정 : 공 요셉 교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슬람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슬람권에서 교육에 투신하게 되셨는지 우리 독자를 위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공 요셉 : 저는 1977년에 처음 창서 초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 10여명이 35여년이 지난 뒤에 저를 찾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정말로 행복한 재회를

하면서 교육계에 몸담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이슬람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신답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에 편입하여 아랍어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원 재학 중에 아랍 연맹이 우리나라 교육부를 통하여 장학금을 주었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여 수단에 가서 외국어로서의 아랍어 교육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어서 움두르만 대학교 문과 대학원에서 꾸란



공요셉 교수

의 음성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대학 강단에서 9년간 아랍어와 중동사 등을 강의하다가 1998년 1월 요르단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르단의 복음주의 신학교가 저를 교수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아랍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배우다가 2002년 요르단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6년간 아랍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요르단 대학교에 한국어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하였는데 해외 한국학 발전에 힘쓴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소 윤정 : 네. 저도 신문에서 공 박사님이 한글날 대통령상을 받으셨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요르단 대학에서 어떻게 한국어 학사학위 과정을 만드셨고 운영하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상을 받게 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요르단에서 한국에 대한 관

심이 어느 정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공 요셉 : 저는 외국어로서 아랍어 교육에 대한 석사학위를 받았고 초등학교 교사 경력과 이화여자 대학교 언어 교육원에서 5년간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으로 요르단 대학교 한국어 방문 교수로 선발되었어요. 요르단 대학교 문과대학의 현대언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중 요르단에 부임한 신 연성 대사에게 한국어과를 만드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대사관과 LG 전자 요르단 지사장의 도움으로 요르단 대학교에 한국학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작품이라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물론 요르단 대학교 측에서는 라자이 알칸지 교수가 적극 협조해 주었어요. 저의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세 자리 수로 늘어난 것도 대학 측이 배려한 것이지요. 그러나 학장이 바뀌면서 아흐마드 마즈두베 교수가 저의 교수직 연장을 안 해줘

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소윤정** : 기독교인의 아랍어와 무슬림의 아랍어 간의 차이를 연구하셨다고 했는데, 같은 언어가 종교 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종교가 다르면 같은 단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다른가요?

**공요셉** : 아랍 기독교 공동체가 이슬람 국가 통치하에 140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지만 특정 부분은 기독교 고유의 색채가 남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랍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은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은혜는 ‘알라가 하사한 재물과 양식 또는 기쁨과 즐거움, 자비(유익과 재물과 행복과 선)’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적 어휘나 신학적 어휘는 이슬람의 용어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아랍어로 쓰인 성경책이나 기독교 신학 책을 읽으면 금방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윤정** : 중동인의 눈으로 본 아랍 신학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랍 교회가 갖는 신학적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공요셉** : 지금 아랍 교회의 주요 신학적 개념은 성령론 - 종말론 - 이스라엘 등이지요. 이슬람에는 성령의 개념이 없어서 아랍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성령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성도가 있기 때문이고요. 종말론은 이스라엘이 어떤 역할을 종말에 하느냐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성경의 이

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윤정** : 많은 책을 저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에 특별히 <꾸란과 아랍어 성경의 의미와 해석>이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 이 책에서 언어학의 의미론과 성경의 해석학을 접목시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비전공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지요.

**공요셉** : 국내 대학의 교수들은 연구비를 주는 학술 논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데 연구 논문은 자신만의 학문 세계를 정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술적인 책을 쓰다보면 자신의 학문을 통으로 보거나 분석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국내 아랍어 학계가 의미론에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랍어 문법의 의미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문법의 의미 연구로는 꾸란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꾸란의 번역은 의미 연구와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의미와 해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무슬림들은 아랍어 낱말의 외형과 의미 문제에 있어서 한 낱말이 여러 의미들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그 낱말(문자) 자체가 신이 내려준 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낱말이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보다 낱말의 외형에만 치우쳐 극도의 문자적인 (letterism) 텍스트주의자가 생겨났는데 이러한 텍스트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살라피를 양산했습니다. 살라피는 낱말의 의미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중시하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낱말의 표면적 의미에 머무르고 말았

고 이 살라피를 서구에서는 근본주의(원리주의)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결국 IS 이슬람 국가 조직이 꾸란과 하디스를 잘못 해석한 것이 극단과 테러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내 무슬림들이 극단과 테러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꾸란의 해석에서 마자즈(원뜻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됨)를 허용하고 또 법 해석에서는 이성을 이용하는 이즈티하드(텍스트에서 법적 판결을 찾는 것)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 윤정 :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의 영적 세계까지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슬람 세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 요셉 : 소 교수님이 이 분야에 연구와 경험이 많으신데 실제로 무슬림들은 성경의 예수와 상당히 다른 '이싸'라는 분을 예언자로 믿습니다. 서구에서는 꾸란의 이싸를 Jesus라고 번역하다보니 서구 학자들이 성경과 다른 점을 부각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꾸란 4:171절에 나오는 '칼리마'와 '루호'를 각각 word 와 spirit로 번역하였지요. 그런데 제가 순니 파와 시아 파, 살라피 파와 아쉬아리 파, 수피파와 이바디 파 등 여러 종파의 주석을 보니 '칼리마'와 '루호'가 여러 의미로 주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의 로고스(word)는 하나님입니다. 꾸란의 칼리마는 영어로 word 라고 번역되지만 아랍어로 된 모든 꾸란 주석서에서는 성육신한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꾸란의 루호가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슬림 주석가들이 루호를 성령으로 기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된 꾸란의 의미 번역(성꾸란)은 칼리마를 말씀이라고 번역하니 기독교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잘못 동일시한 것이지요. 이것은 국내 학자들이 아랍어로 된 꾸란 주석과 꾸란 본문을 읽어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러려면 국내에서 꾸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학 강좌가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슬람과 아랍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과 공직자, 언론인들이 계속 이슬람과 꾸란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므로 복음을 무슬림에게 전하는 사람은 성경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과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 윤정 : 중동의 한국학 발전을 위해서 「중동 아프리카의 한국학 저널」(Journal of Korean Studies in the Middle East & Africa)을 창간하여 아랍어로 책을 발간하여 아랍의 20개 국가에 배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언제부터, 어떻게 발간하게 되었는지요? 운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보람이 있으셨는지요?

공 요셉 : 제가 요르단 대학교 방문 교수가 된 후에 아랍 학계에 게재 된 저의 논문들을 학교에 제출하여 정식으로 조교수가 되었어요.

그때 한국학 중앙 연구원에서 해외 한국학 연구를 위한 지원이 있어서 연구비 신청을 했는데 첫 해에는 Towards promoting more cooperation w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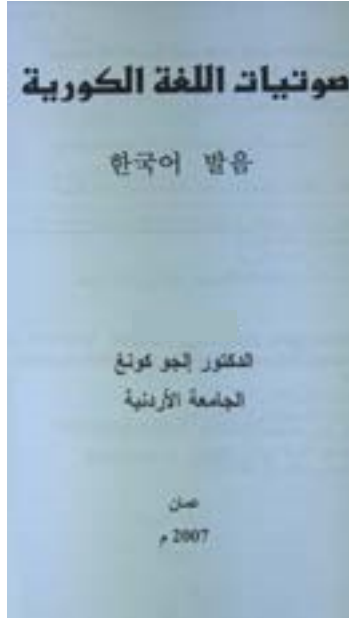
KOREA (2006)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그 다음 해에 중동의 한국어 저널을 창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요르단 대학교 출판부에서 아랍어로 배우는 한국어 (1)과 (2)를 출간하였고 한국어 발음이란 책을 아랍어로 출간 했는데 이 책들을 아랍의 20여개 국가에 각각 두 대학교를 선정하여 도서관으로 보냈어요. 이런 일을 계속했다라면 한국을 아랍 세계에 더 많이 알릴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어, 한국사, 한국 문화 책들을 아랍어로 저술하거나 번역했어야 했는데 어렵지요. 요르단에서는 한 요르단 친선협회에서 아랍어로 연설도 하고 요르단의 지성들이 모이는 '아랍 사상 포럼'에 초청되어 아랍어로 강연도 했어요. 아랍어를 배워서 아랍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강의와 저술을 했던 것이지요.

소 윤정 : 2014년에는 중동 아프리카 연구소의 소장을 맡아 「아랍 이슬람 세계 저널」(Journal of Arab and Islamic world Studies)을 창간하셨지요? 지금도 이 저널이 잘 발행되고 있는지요?

공 요셉 : 요르단 대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학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랍어가 많이 숙달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위해 걸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건설교통부 장관 통역을 하기도 했어요. 요르단을 떠나고 난 뒤에는 여러 아랍 국가를 다닐 기회가 생겼는데 나라마다 아랍인들의 말이 조금씩 다르고 그들이 믿는 이슬람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아랍사상포럼(알문타다)표지



한국어발음(아랍어로 출판)



알문타다에 실린 강연원고와 사진



마디로 다양한 무슬림들이 여러 이슬람 성향을 가진 것이지요. 요르단 대학교 재직 중에 시작한 이슬람과 대학원 때 공부한 꾸란을 더 깊이 연구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을 방문하면 그 지역의 연구자나 대학 교수들을 만나서 아랍 세계와 이슬람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이슬람 연구에서 아랍어를 모르면 다른 학자가 연구한 것을 인용해야 하지만 아랍어를 알면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할 수 있어요. 가령, 무슬림들은 꾸란이 아랍어로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서구 학자들은 그 속에 아랍어 Aramaic가 들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미국 덴버에 가서 아랍어 수업을 듣고 이라크인에게서 아랍어를 배웠어요. 아랍인 학자와 서구 학자와 한국인 학자 셋이 어떤 주제를 연구하면 우리가 굉장한 학문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간한 저널이 '아랍과 이슬람 세계'이고 매년 발간되고 있어요.

**소윤정:** 최근에 한국 사회에 취업이나 난민 신청 등으로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무슬림에 대한 경계론이 있는가하면, 관용론도 있습니다. 공 박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요셉:**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겠지만 실제로 이슬람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시각을 가진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 이슬람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그 예로 사드 문제로 관광객을 중국이 안 보내니까 관광청은 무슬림 관광객을 잡자고 했어요. 이것을 보면 이슬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최근 언론에서는 16만 명의 무슬림이 국내에 있다고 하는데 국내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통계를 정부가 정확히 모릅니다. 정부와 교회는 국내 무슬림의 실태 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적어도 과격 성향의 무슬림과 온건 성향의 무슬림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국내 모스크의 이맘들을 찾아가 안보와 사회에 대한 강좌를 열어야 합니다. 또한 이슬람을 연구하는 무슬림과 비 무슬림 학자들이 모여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참고서의 이슬람에 대한 편향된 서술을 재심의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슬람에 대한 적절한 관점과 태도를 갖게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 말 이라크에서 IS가 붕괴되었다고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극단적인 사상에 몰든 청소년들과 함께 IS대원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과 부인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유럽 각국은 입국자들을 면밀히 조사하는데 벨기에는 1년에 100여명의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입국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부류의 무슬림이 극단적인 사상을 갖는지에 대한 새로운 강좌도 필요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청소년 7000여명이 우리 사회에서 주변인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도와 양육의 매뉴얼이 모든 교회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슬람 연구 기관에서는 교회와의 관계, 이슬람 커뮤니티와의 관계, 이슬람 센터와 이슬람 자선 단체와의 관계, 정부 기관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이슬람에 대한 경계론과 관용론을 두고 너무 탁상공론이 많았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치안을 어렵게 하는 극단적인 무슬림들의 입국을 차단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하고 교회는 그들의 영혼 구원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소 윤정 :**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슬람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 요셉 :**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슬람권으로 나간 사역자는 아랍어와 이슬람을 잘 모르고 나간 한인 디아스포라의 목회자였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 나가있는 대부분의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는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내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을 보면 그들이 이슬람권 선교의 최선봉장이 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인 디아스포라는 기도와 물질 후원이 전부입니다. 한인 목회자가 이슬람권 선교의 전략을 소개할 수 있지만 직접 사역은 어렵습니다.

우선 소정의 언어교육을 받도록 하고 현지인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현지 언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초기 사역을 천천히 진행 하더라도 언어는 반드시 숙달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아랍어는 해당 국가의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대중 아랍어(colloquial Arabic) 이외에 현대 표준 아랍어 그리고 꾸란의 아랍어가 있고 아랍 무슬림의 아랍어와 아랍 기독교인의 아랍어가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 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1998년 요르단에 갔을 때 미국인 교수가 아랍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6년에 그 분이 한국인 사역자들에게 아랍어를 어느 정도 어느나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 중 아랍어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그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역의 성장입니다. 이슬람권 컨텍스트에서 교회의 증거가 확대되고 이슬람의 압력 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돕고 무슬림에게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상황에 맞는 자원들을 실제적인 필요에 맞게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앞의 두 가지 보다 우선 할 것은 자신의 삶의 성숙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며 잘 마치는 사역은 그가 떠난 뒤에도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